

독서문화와 독서지도

소 시 중

매재고등학교 교사

I. 독서의 중요성

독서는 글을 통해서 글의 의미(意味) 즉 글쓴이의 생각이 독자의 뇌에 일어나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표현 할수 있겠고,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독서 즉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對話)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독서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인격을 형성시키는 면에서나 사고력을 기르는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구성 요인(要因)을 살펴 보면 육체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독서는 정신적 요인에 속한다. 육체적 요인에서 먹고 호흡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요인에서도 독서하고 생각하여야만 정신 활동을 활발히 유지할 수가 있겠다. 인간이 소유하는 부(富:資本)에도 물질적 자본이 있어서 생활에 편리를 준다고 하면, 또한 정신적 자본이 있어서 생활을 값지게 보람있게 보낼 수 있게 한다. 독서는 생활을 값지게 보내는 정신적 자본의 기초를 이룬다고 하겠다.

II. 독서문화와 그 형성을 위한 제언

1. 독서문화

독서(讀書)는 책을 읽는 것이요 문화(文化)는 인지(人智)가 깨고 세상이 열리어 밝게 되는 것이다¹⁾. 독서문화는 책을 읽어서 지혜를 깨우쳐 세상을 밝히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문화"라는 단어를 정식으로 들어 보기는 국제독서세미나르²⁾의 한 발표문 즉 독서에 관한 전문적 관심을 다루는 면에서 찾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3가지로 구분 된다. 첫째 읽을 수 있는 독서능력의 개발, 둘째 읽으려 하는 독서습관의 형성, 셋째 집단 특성의 하나인 독서문화의 조성"이다.

「독서능력의 개발」이나 「독서습관의 형성」등에 대해서는 기왕에 연구 진행 된 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었으나 「독서문화」라는 단어가 연구 발표의 요건(要件)중의 하나로 나와지는 것에는 생소한 편이어서 관심적이

기도 했다.

독서문화는 실용적, 교양적 또는 전체적 목적이전 독서를 장려하고 포상하는 사회심리적 풍토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서문화의 증가는 여러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예컨대 가정에서 가지고 있고 읽혀진 책 수, 학교에서 가지고 있고 참고되고 읽혀진 책 수, 분비는 통근차나 뺨스나 지하철에서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사람의 수, 매년 출판되는 책 수, 신문에 나오는 책 광고 수와 서평 수 등이다. 분비는 지하철에서 어쩌다 책을 읽고 있으면 자기 혼자말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街學的이라고 비웃을까봐 도로 책을 호주머니에 집어 넣는 수가 있다. 인간이란 두드러지게 모방적이고 집단 압력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이다³⁾.

독서문화의 형성은 독서환경의 조성에서부터 출발 된다고 보겠다. 특히 인간에게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모방적이면서도 집단 압력을 받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독서문화의 창조는 사회 정화의 한 방법이 되겠고 또 청소년(靑少年)들에게는 그들의 범죄 예방이나 품성(品性)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2. 독서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언

책을 읽어서 인지(人智)를 깨우치며 또한 사회 심리적 풍토인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서 다음의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전문적인 도서관원이나 독서 전문가들은 개척자(pioneer)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먼저 독서하는 모범 생활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이웃과 사회가 독서환경의 형성으로 인한 독서문화가 조성되어질 것이다.

- 1) 金炳元. 讀書와 讀書指導. 寶林出版社. 1976. p.224.
- 2)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73. p.1044.
- 3) 국제독서세미나르가 1976. 8. 12. 9:00-13:00 서울,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됨.
- 4) 정범모. 독서력과 국가발전. p.4. (국제독서세미나르에서의 발표문)
- 5) 정범모. 上揭書. p.5.

우리사회의 병폐중의 하나가 자기 스스로는 행(行)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행하라고 명령하거나 “하자”고 권유하는 일이다. 그러나 참된 지도의 방법은 “하라” 또는 “하자”고 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직접 먼저 하는 것이다. 독서에 뜻을 갖는 사람들이나 독서전문가 또는 도서관인들이 하나 하나의 씨앗이 되어 무언중의 독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독서 보급의 첫걸음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독서하고 있는 상태만큼은 흉악한 감정의 상태가 아닐 것이므로 독서 행위는 특히 사회정화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마치 복음 전도자가 사명을 가지고 복음전도 하러 나가듯이 모든 도서관인, 독서전문가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부터 사명을 갖고 솔선수범의 본을 보일 때 사회는 독서환경의 문화가 조성되어 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을 강화시키고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용시켜서 학교독서문화를 조성시키도록 한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성과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갖는데 있다⁶⁾고 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독서능력을 갖는 데서 크게 영향 받는 바가 되겠다고 여겨진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독서문화의 조성이라 더 쉽게 되어 진다. 구성원이 모두 피교육자인 학생들이며,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교사의 지위,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학교교육의 상황을 보면 지(知)적인 학과공부에 중점을 두는 나머지 독서교육 같은 것에는 등한히 한다. 그러나 알고보면 지적인 학과공부를 잘하는데에도 독서 즉 학습독서가 필요한 것이다. 독서를 잘 해야만 공부도 잘한다. 독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독서는 그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교육이 학교 안에서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는 교과과정 속에서 독서를 하도록 자극시키고, 유익하도록 하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나아가 독서가 의·식·주와 같은 인간 생활의 필수 조건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할 것이다⁸⁾. 학생 신분에 있을 때부터 독서에 대한 맛을 알고 독서 생활의 분위기가 학원사회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학생이 독서함에 필수적으로 도서선택의 방법을 터득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도서선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들의 능력이 알맞는 책
- ② 학습활동과 연관이 있는 책
- ③ 흥미가 있고 고전적 가치가 있는 책
- ④ 책의 크기와 인쇄 제본 활자가 좋은 책
- ⑤ 가능한 도서관에 있는 책
- ⑥ 현재 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

⑦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책
세째로 가정에서도 독서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가정의 독서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인간 생활에서 행복 불행의 시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가정에서의 행복, 화목은 누구나가 다 원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의 하나가 독서하는 것이다. 독서하므로써 가정의 분위기가 부드럽고 독서를 통한 정신적인 일치감과 상호(相互) 존중의 가풍(家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독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안에 모든 식구들이 독서에 대한 의욕을 갖어야 하겠고, 가능한대로 많은 책들이 비치되어져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공부나 독서하는 방이 따로 구별되어져서 있었으면 이상적이 되겠다. 그래서 독서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 보람있는 일을 하는 가정과 상통(相通)되어 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끝으로 도서 출판에서 양서(良書)가 많이 출판됨으로써 독서문화 조성의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자료없는 독서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 자료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판사가 양서를 말들어 낸다는 일은 독자를 위해서 마땅한 도리이다. 독자는 바로 그 도서 자료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양서(良書)냐? 악서(惡書)냐? 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크다. 출판사가 눈앞의 영리에만 치우치지 않고, 장래를 생각하면서 양서를 출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출판 상황은 약 1,000여개의 출판사가 있는데, 2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출판사는 22개사에 불과하고, 10년 이상이 된 출판사가 190개사이며, 해마다 160개사 정도가 등록된다고 한다. 또 책이 출판되어 독자에게 공급되기까지는 9개월이 걸리고 발행된 부수가 다 팔리기까지는 2년내지 3년이 걸린다고 한다⁹⁾. 이러한 상황의 통계로 볼때, 20년 이상된 출판사는 제외하고도, 10년 이상의 전통적인 출판사가 200개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출판사의 부진 상황임을 말해주고, 해마다 160여개의 출판사가 새로이 등록된다는 것은 등록은 있으나 오래 계속되지 못하는 출판계의 부실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출판사가 출판한 자료와 독서와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이 맑고 많이 있어야

6) 교육법 제1조

7) 양태진. 독서운동 그 현황과 진단, 도림월보 Vol 14, No 19, p.2

8) 朴泰臣. 中學校에서의 讀書指導, 大韓出版文化協會, p. 12-13.

9) 양태진. 前掲書, p.5-6.

활발하게 해엄쳐 다닐 수 있듯이, 많고 또 좋게 출판된 자료에 의해서 독자는 활발히 독서할 수 있겠고 눈과 마음을 끄는 자료는 독서할 의욕과 활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된다.

Ⅲ. 독서지도

1. 독서흥미지도

무슨 일을 할 때에나 그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을 때 의욕과 성취가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있어서도 그 독서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갖어야 성공적인 독서가 된다. 결코 강제적이거나 억지가 작용해서 독서를 시킨다면 독서효과가 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독서흥미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책만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독서흥미가 발생되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독서흥미와 관련된다는 점들을 열거해 보면¹⁰⁾

★ 독자가 독서에 흥미가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 ① 책에 열중하고 있다. 읽기를 중단한다는데 저항을 보이고 있다.
- ② 읽기에 소비하는 시간도 길어지며 또 한번에 읽는 분량도 많아진다.
- ③ 읽는 책수도 점점 많아진다.
- ④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이나 감상을 이야기 해보려 한다.
- ⑤ 읽고 싶은 책을 자진해서 찾아내려고 한다.

★ 독서흥미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 ① 독자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고를것.
- ② 끝까지 읽어 냈다는 성공감을 줄것 즉, 이러한 성공감 만족감의 누적이 독서흥미에 크게 작용한다.
- ③ 독서지도 방법에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게 할 것. 즉 독자가 읽고 싶어 하는 눈치가 보이거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독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④ 독서흥미의 범위를 점점 넓히도록, 또 드높이도록 주의할 것 등이다.

★ 독서흥미를 조사하는 방법

- ① 평소 관찰에 의한 방법
- ② 듣는 방법
- ③ 질문지에 의한 방법
- ④ 도서관의 열람카드에 의한 방법 등이다.

★ 독서흥미를 기르기 위한 지도

- ① 환경만들기
- ② 읽을거리에 대한 화제
- ③ 읽어서 들려주기

- ④ 독서발표회
- ⑤ 교과와 관련지도 등이다.

2. 독서효과지도

독서효과라고 함은 독서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터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독서를 하자고 하고 또 실제로 독서를 하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있게 독서 하는 것인지 막연할 때가 많다. 독서에는 정독(精讀)과 다독(多讀)으로 구분한다. 정독은 정확히 읽기를 바라는 것이고 다독은 많이 그리고 빨리 읽기를 바란다고 할 수 있다. 정독의 경우 책 내용의 정확함을 터득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는다. 그러나 독서는 가능한 대로 속독(速讀)하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속독을 권장한다고 해서 빨리만 읽는다고 독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속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평소의 태도와 같이 읽되 내용을 파악하면서 속독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속독의 기준은 1분에 평균 몇자 읽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기 위하여 시간을 재면서 글을 읽어 본 일이 있는가? 에서 출발되고 그에 대한 속독 확인표는 다음과 같다¹¹⁾.

<소요시간> <1분에 읽은 평균 글자수>

0분 30초	1,832자
0분 40초	1,374자
0분 50초	1,099자
1분	916자
1분 10초	785자
1분 20초	687자
1분 30초	616자
1분 40초	550자
1분 50초	500자
2분	458자
2분 10초	423자
2분 20초	393자
2분 30초	366자
2분 40초	344자
2분 50초	323자
3분	305자
3분 10초	289자
3분 20초	275자
3분 30초	262자

자기가 읽은 속도가 확인되면 글자 수에 ○표를 하고

10) 讀書指導研究會編, 讀書指導事典, 景仁文化社, 1975. p.310-312.

11) 金炳元, 前掲書, p.10-18.

오른쪽에 읽은 날자를 써 놓는다. (1초에서 4초까지는 없애고, 5초에서 9초까지는 10초를 더한다. 글을 다 읽는데 소요된 시간이 1분 4초이면 1분에 해당하는 수 916이 자기가 읽은 글자수이다. 만일 1분5초이상에서 1분9초 까지에 들어있는 수이면 1분10초에 해당하는 수 785가 자신이 1분에 읽은 글자의 수이다).

읽기 끝난 시각에서 읽기 시작한 시각을 빼면 그 글을 전부 읽는데 소요된 시간이 나온다. 그리고 현재 자기의(독자) 평균속도를 내려면 먼저 읽은 속도보다 지금의 읽은 속도를 더하여 그 합계를 2로 나눈다.

즉,

$$\begin{array}{r} \boxed{} \text{ 먼저 읽은 속도} \\ + \boxed{} \text{ 지금 읽은 속도} \\ \hline \boxed{} \div 2 = \boxed{} \\ \text{(평균속도)} \end{array}$$

★ 속독을 위한 훈련과 요령으로는¹²⁾

- ① 목독을 하고
- ② 의미를 일고
- ③ 눈동자의 훈련
- ④ 율동과 눈동자의 움직임
- ⑤ 예견
- ⑥ 종합훈련등 이다.

3. 독서습관지도

모든 사람에게에는 각자 자기나름 때로의 습관이 있다. 이 습관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주 반복 하고 훈련되어 지는데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습관은 묘한 것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여 지는 것도 습관이 갖든 때문이요, 그렇게 행하여야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아니 행하여 지는 것도 습관이 갖든 때문이다.¹³⁾ 독서하는데도 이러한 습관이 갖들어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만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책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무엇을 읽은 것 같은 허전한 상태¹⁴⁾까지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겠다. 이렇게 독서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에게에는 책을 읽는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 독서습관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려면¹⁵⁾

A. 독서습관의 육성

- ① 독서에 대한 흥미의 정착화
- ② 독서의 생활화
- ③ 독서기술 및 태도육성

B. 독서생활의 습관 육성

- ① 일상생활의 사이클 속에 정착을

② 습관화를 길인다.

- ㄱ. 발전적 독서안내
- ㄴ. 자극의 되풀이
- ㄷ. 짧은 시간의 활용
- ㄹ. 알맞은 책과 주제적인 독서활동 등

독서습관의 형성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독서습관이 라고 해서 억지 독서를 시킨다거나 안좋은 형태의 독서형태로 몰아 넣으려고 해서 는 안되고 그러한 단순한 습관화보다 나은 습관화를 지향하는 독서생활의 습관화를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길러져야 하겠다. 또 한가지는 독서가 왕성하게 되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생활의 리듬이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에¹⁶⁾ 주의해야 한다.

N. 결 론

독서문화는 창조되어야 하겠고 독서지도는 자연스럽게 또 철저히 시행되어져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독서의 효과 요령을 체득하고 독서습관이 갖들어 지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서 독서인구를 증가시키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하는 여건으로는¹⁷⁾ 소득의 향상, 책값의 절하, 도서관 시설의 확충, 제도적 개선, 독서에 대한 흥미유발, 실생활에 있어서 독서의 유익성에 대한 계몽 등으로 열거하여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굳건한 정신적 자세위에 이러한 여건들을 감지(感知)해서 독서하는 나,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① 도협월보 Vol.14/No.9.
- ② 도서관 Vol.26/No.9
- ③ 배재 제156호
- ④ 朴泰臣. 中學校에서의 讀書指導. 大韓出版協會(세미나르)
- ⑤ 金奎東. 讀書法, 韓一出版社, 1972.
- ⑥ 安春根. 讀書의 知識. 教養新書50, 新楊社, 1958.
- ⑦ 김승환. 讀書指導를 통한 학생들의 讀書習慣形成에 관한 研究. 延大教育大學院.
- ⑧ 蘇時重. 學級文庫를 통한 學習增進形成에 관한 研究. 延大教育大學校. 1975.
- ⑨ 金炳元. 讀書와 讀書指導. 寶林出版社, 1976.
- ⑩ 한국도서관통계. 도협, 1972.
- ⑪ 讀書指導研究會. 讀書指導事典, 景仁文化社, 1975.

12) 金炳元. 前掲書, p.21-60.

13) 소시중. 습관, 배재 제154호(4월호) p.12

14) 安春根. 讀書의 知識. 教養新書50. 新楊社 1958. p.80.

15) 讀書指導事典. 前掲書. p.306-309.

16) 上掲書.

17) 양태진. 前掲書. p.6.